

2009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SOC 예산 선집행 불구, 아직 체감경기 침체 여전

- 전월대비 11.6p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지수는 50선 못 미쳐 -

- 작년 10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경신했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침체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에 못 미쳐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CBSI 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심화로 작년 10월 이후 2개월 동안 단기간 사상 최대 낙폭인 35.5p나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경신하며 11월에는 14.6을 기록했음.
- 그러나, 지난 12월 지수가 전월대비 22.7p 증가한데 이어 1월에도 전월대비 11.6p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가 48.9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됨.
- 이는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주택경기가 이미 최악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고, SOC 예산 증액 및 선집행 효과가 중소기업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2개월 연속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50선에 못 미쳐 체감경기 침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2월 지수 전망치도 44.5에 불과해 현재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2월에는 대형업체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으나, 1월에는 중소기업이 지수상승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0월 이후 2개월 동안 59.0p나 하락해 업체 규모별로 가장 낮은 수치(7.7)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12월에 38.5p 상승하여 지수 반등을 주도한데 이어 이번 1월에도 7.7p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수는 53.8에 불과해 아직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함.
- 이미 오래 전부터 침체가 심해 작년 9월 이후 하락 폭(18.4p 하락)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12월 9.1p 상승에 이어 1월에는 21.2p 상승한 50.0을 기록해 지수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는 SOC 예산 선집행효과가 소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12월 18.5p 상승에 이어 1월에도 7.2p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중소기업에 비해 상승 폭이 적어 지수가 가장 낮은 42.9에 머무르며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공사물량 지수는 연말 발주물량 증가로 지수가 다소 양호했던 지난 12월 보다 다시 8.1p 하락한 54.5를 기록했으며, 공종별로는 SOC 예산 선집행 효과로 토목물량 지수가 가장 양호한 가운데, 주택물량 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감.
 - 토목물량 지수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에 따라 82.5(전월비 36.2p 상승)를 기록한 12월에 비해서는 6.0p 하락한 76.5를 기록했으나, 타 공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체의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비 15.4, 16.6 상승한 80.8, 71.2를 기록해 SOC 예산 선집행 효과가 우선 중소규모 토목공사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반면,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6.7p 하락한 24.6을 기록하여 작년 11월(28.3)의 사상 최저치를 재경신하면서 최악 상황을 이어감.
 - 비주택물량 지수 역시 최근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3p 하락한 37.6을 기록해 물량 침체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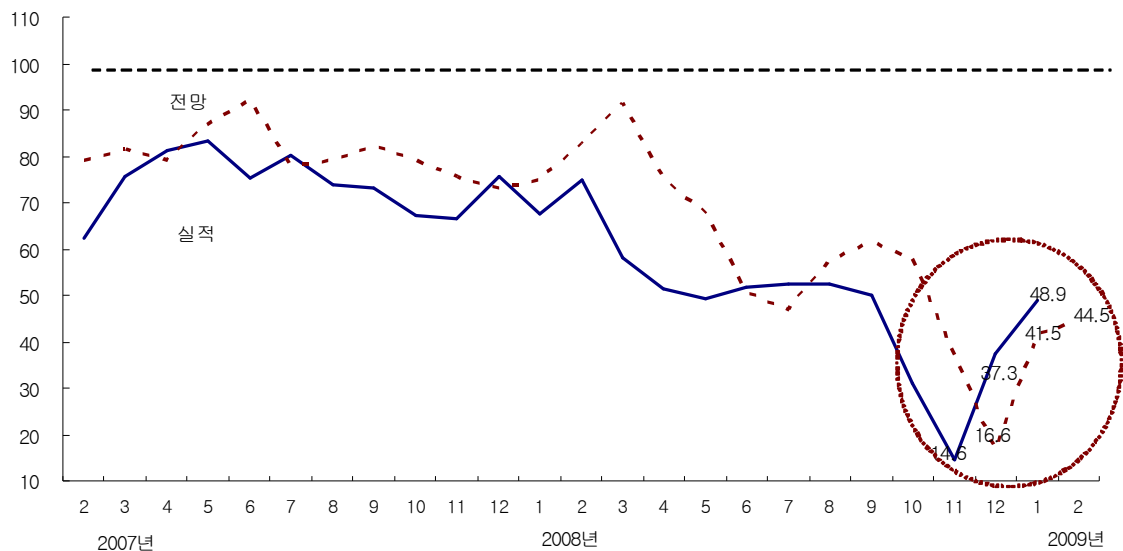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물량 침체로 인력 및 자재부문의 수급은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금관련 사정은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 지수가 114.8을 기록하여 인력수급 상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지수도 91.7을 기록해 인건비 상황도 공사물량 축소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 상반기 50선을 넘지 못했던 자재수급 지수 역시 104.7을 기록해 공사물량 축소에 따라 수급 상황이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재비 지수는 83.0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21.5p, 16.3p씩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67.9, 74.3에 불과해 자금관련 상황이 여전히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09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월대비 11.6p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지수는 50선 못 미쳐

- 작년 10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경신했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침체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에 못 미쳐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CBSI 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심화로 작년 10월 이후 2개월 동안 단기간 사상 최대 낙폭인 35.5p나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경신하며 11월에는 14.6을 기록했음.
- 그러나, 지난 12월 지수가 전월대비 22.7p 증가한데 이어 1월에도 전월대비 11.6p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가 48.9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이는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주택경기가 이미 최악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고, SOC 예산 증액 및 선집행 효과가 중소기업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2개월 연속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50선에 못미쳐 체감경기 침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2월 지수 전망치도 44.5에 불과해 현재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2월에는 대형업체가 지수상승을 주도하였으나, 1월에는 중소기업체가 지수상승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0월 이후 2개월 동안 59.0p나 하락해 업체 규모별로 가장 낮은 수치(7.7)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12월에 38.5p 상승하여 지수 반등을 주도한데 이어 이번 1월에도 7.7p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수는 53.8에 불과해 아직 체감경기 침체는 여전함.
- 이미 오래 전부터 침체가 심각해 작년 9월 이후 하락 폭(18.4p 하락)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중소기업체 지수는 12월 9.1p 상승에 이어 1월에는 21.2p 상승한 50.0을 기록해 지수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는 SOC 예산 선집행효과가 소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12월 18.5p 상승에 이어 1월에도 7.2p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중소기업체에 비해 상승 폭이 적어 지수가 가장 낮은 42.9에 머무르며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8.2	51.4	49.3	51.7	52.5	52.3	50.1	31.1	14.6	37.3	48.9	41.5	44.5
규모 별	대형	55.6	63.6	72.7	90.0	80.0	66.7	66.7	44.4	7.7	46.2	53.8	38.5
	중견	75.0	46.2	39.3	34.5	46.4	50.0	44.4	17.9	17.2	35.7	42.9	57.1
	중소	42.2	43.1	33.3	26.5	27.1	38.1	37.1	30.6	19.7	28.8	50.0	27.1
지역 별	서울	63.7	60.0	58.9	69.7	68.7	62.6	57.8	33.6	9.8	41.0	49.2	42.6
	지방	46.9	36.6	33.3	22.9	25.5	33.7	38.3	26.7	22.3	31.6	48.4	39.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49.2로 전월대비 8.2p 증가, 지방업체는 48.4로 전월대비 16.8p 증가, 지방과 서울 모두 침체정도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수는 50선 미만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자금의 악화정도가 소폭 개선됨에 따라 전월보다 8.2p 증가한 49.2를 기록함.
 - 지방업체의 지수는 공사물량과 자금사정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전월보다 16.8p 증가한 48.4를 기록하였으나, 지수가 여전히 50선 미만임.
- 2009년 2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44.5를 기록하여 1월보다 경기가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과 중견업체는 각각 38.5, 39.3을 기록 1월보다 경기가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57.4로 전망하여 경기 악화정도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는 41.2, 지방업체는 49.7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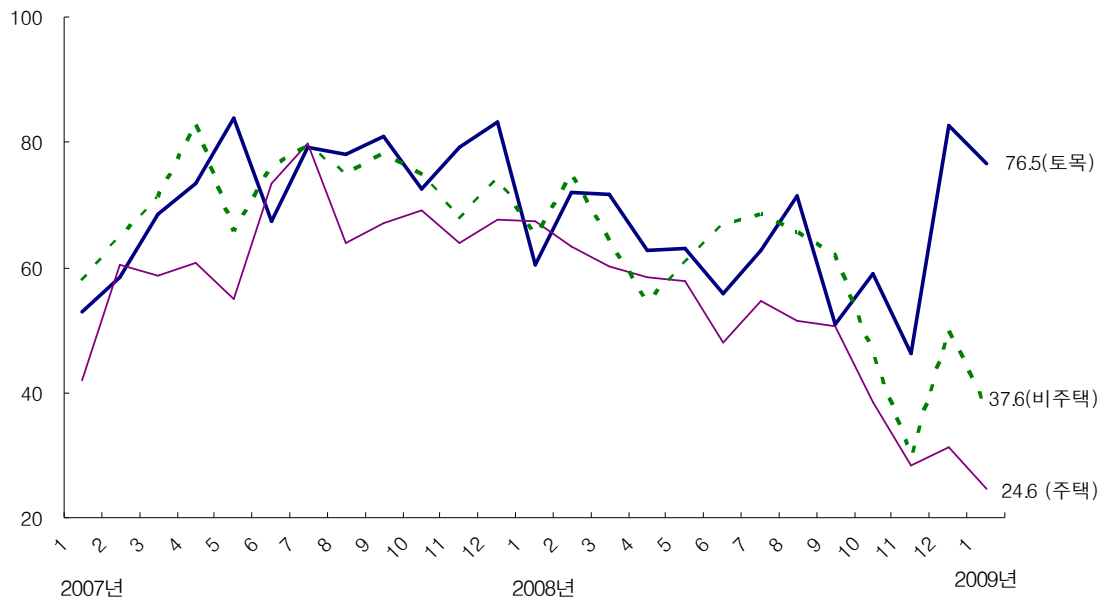
공사물량지수, 연말 발주물량 증가로 지수가 다소 양호했던 지난 12월보다 다시 8.1p 하락한 54.5 기록

- 공사물량 지수는 연말 발주물량 증가로 지수가 다소 양호했던 지난 12월보다 다시 8.1p 하락한 54.5를 기록했으며, 공종별로는 SOC 예산 선

집행 효과로 토목물량 지수가 가장 양호한 가운데, 주택물량 지수가 사상 최저수준을 이어감.

- 토목물량 지수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에 따라 82.5(전월비 36.2p 상승)를 기록한 12월에 비해서는 6.0p 하락한 76.5를 기록했으나, 타 공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체의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비 15.4, 16.6 상승한 80.8, 71.2를 기록해 SOC 예산 선집행 효과가 우선 중소규모 토목공사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반면,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6.7p 하락한 24.6을 기록하여 작년 11월(28.3)의 사상 최저치를 재경신하면서 최악 상황을 이어감.
 - 비주택물량 지수 역시 최근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3p 하락한 37.6을 기록해 물량 침체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가 전월보다 38.4p 감소하여 46.2를 기록한 반면, 중견과 중소기업체의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각각 15.4p와 16.7p가 증가하여 59.3과 59.0을 기록함.

- 대형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38.4p 감소한 46.2을 기록하였는데 주택과 비주택 물량의 침체가 두드러짐(주택 물량은 역대 최저치인 15.4 기록, 비주택 물량도 전월 대비 30.7p 감소한 38.5 기록함).
- 중견업체의 경우 토목 물량 지수의 개선(전월 대비 15.4p 증가한 80.8을 기록)으로 물량 지수가 전월보다 7.3p 증가한 59.3을 기록함, 토목 물량을 제외한 다른 공사 실적 지수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주택 물량은 전월과 동일한 22.2 기록, 비주택 물량은 전월보다 6.2p 감소한 40.0을 기록)
- 중소기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30.3p 증가한 59.0을 기록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보다 16.7p 증가하였으며,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도 각각 전월보다 12.0p와 2.5p 증가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4.5	46.2	59.3	59.0	52.8	57.4
	전망	68.6	69.2	66.7	70.0	66.8	71.2
토목	실적	76.5	76.9	80.8	71.2	79.5	71.7
	전망	84.0	92.3	84.6	73.7	89.3	75.9
주택	실적	24.6	15.4	22.2	38.0	19.7	32.1
	전망	36.0	23.1	37.0	50.0	26.1	52.5
비주택	실적	37.6	38.5	40.0	34.0	37.7	37.6
	전망	46.2	46.2	48.0	44.2	44.2	49.8

주 : 실적은 2009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2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가 주택과 비주택 물량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어 지수가 전월보다 18.6p 감소한 52.8을 기록하였으나, 지방 업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물량의 침체 정도가 개선되어 지수가 전월보다 8.8p 증가한 57.4를 기록함.
- 2009년 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월 실적치 보다 16.1p 증가한 68.6을 기록하여 공사 물량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토목 물량 지수가 84.0을 기록하여 토목공사 물량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인력/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 관련 상황 여전히 매우 심각**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물량 침체로 인력 및 자재부문의 수급은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금관련 사정은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수급 지수가 114.8을 기록하여 인력수급 상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지수도 91.7을 기록해 인건비 상황도 공사물량 축소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 상반기 50선을 넘지 못했던 자재수급 지수 역시 104.7을 기록해 공사물량 축소에 따라 수급 상황이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재비 지수는 83.0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21.5p, 16.3p씩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67.9, 74.3에 불과해 자금관련 상황이 여전히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4.3	69.2	71.4	83.6	69.4	82.2
		전망	68.3	61.5	67.9	76.7	64.1	74.9
	자금조달	실적	67.9	76.9	60.7	65.6	66.4	70.3
		전망	64.0	69.2	60.7	61.7	63.2	65.3
인력	수급	실적	114.8	130.8	114.3	96.8	119.6	107.1
		전망	114.5	130.8	117.9	91.7	123.6	99.8
	인건비	실적	91.7	92.3	107.1	73.3	95.6	85.3
		전망	91.6	100.0	100.0	72.1	98.0	81.2
자재	수급	실적	104.7	107.7	107.1	98.4	109.4	97.5
		전망	104.4	107.7	110.7	93.3	111.3	93.5
	비용	실적	83.0	92.3	85.7	69.0	92.6	67.6
		전망	88.1	107.7	85.7	67.8	100.4	68.6

주 : 실적은 2009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2월 예측지수임.